

『우스마일』,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의 반복과 변주*

최사라
서울대학교

최사라(2020), 『『우스마일』,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의 반복과 변주』,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2), 133-154.

초록 소설 『우스마일』은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비에케스 풍경을 우스마일 가족을 통해 그려낸다. 키코(1대)-체파(2대)-우스마일(3대)로 이어진 가족의 신산한 삶은 그 삶을 둘러싼 ‘모욕하는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본고는 모욕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원리와 구성원의 대응 유형을 밝혀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역 기반 리얼리즘 소설의 당대성을 확장된 의미로 이해한다. 모욕을 사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공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가장된 탈식민화의 세계에서 여전한 식민성의 그늘을 모욕이란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비에케스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편입되는 과정은 곧 식민화와 군사화의 과정이기도 했다. 본문에서는 모욕하는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각 인물별로 분석했다. 첫째, 키코가 겪은 원리는 비인간화다. 그 세계에 대한 키코의 대응과 결과는 편집증적 망상과 죽음이었다. 둘째, 체파가 겪은 원리는 식민화였고, 그에 대한 체파의 대응과 결과는 종속됨과 죽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스마일이 겪은 원리는 군사화다. 우스마일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일말의 저항의식을 가졌고 저항 행위를 한 뒤 경찰에 붙잡힌다. 본문에서는 이를 개인적 저항에 따른 잠정적인 죽음으로 해석한다. 소설 속 개인들은 세대를 거쳐 강화되는 모욕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 대응을 모색한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자연사가 아닌 죽음이다. 소설은 모욕하는 세계에서 저항하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세히 묘사한다. 또한 모욕하는 세계에서 저항하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면 죽음뿐이란 결론을 도출한다. 동시에 우스마일을 통해 저항하는 ‘개인’으로서 행위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소설의 결말 속 우스마일의 모습은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이란 패턴이 지배하는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는 시작의 가능성도 품고 있다. 모욕하는 세계의 원리를 인식할 것, 무엇이 문제인지 왜곡 없이 직시할 것, ‘함께’ 저항할 것. 그것이 품위 있는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핵심어 우스마일, 비에케스, 푸에르토리코, 모욕, 저항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함

소녀 체파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우스마일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자신과 비에케스를 버리고 떠난 미스터 아담스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던 체파가 아이 이름을 미국우편(U.S.Mail)에서 철자를 따와 ‘우스마일(Usmaíl)’로 지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출산 직후 바로 세상을 떠났다. 소설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비에케스에 등장한 미국의 기관과 시설, 그 영향을 우스마일의 성장 과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소설 속에 삽화처럼 등장하기도 한다.

한편, 평단은 소설에 기이할 만큼 무관심했다. 카르멘 실라 로드리게스(Carmen Cila Rodríguez)는 소설에 대한 평단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소설이 갖는 대표적 위상을 뜻한다고 말하며, 출간 후 60여년이 흐른 지금 소설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했다. 비에케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게 한 작품의 의미를 온전히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페드로 후안 소토의 대표작인 『우스마일』은 올해로 출간 60주년을 맞았다. [...] 이 소설은 비에케스 섬의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그려낸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 일부 사람들은 비에케스 사건앞에서, 아마도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소설에 대해 침묵해야한다거나 문학적 어둠속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19)

드물게 존재하는 『우스마일』에 대한 선행연구 중 1981년 푸에르토리코의 시인 루스 마리아 움피에레(Luz María Umpierre)가 발표한 논문인 「페드로 후안 소토의 『우스마일』 속 이데올로기적 흐름(Corrientes ideológicas en el *Usmail* de Pedro Juan Soto)」은 우스마일의 공간적 배경인 비에케스를 푸에르토리코를 상징하는 소우주(microcosmo)로 본다. 국가적·인종적 정체성 문제를 우스마일이란 인물의 실존적 문제와 푸에르토리코의 역사적·정치적 현실과 관련해 해석한 것이다. 2004년 빅토르 심슨(Victor C. Simpson)은 페드로 후안 소토의 소설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인 『푸에르토리코 식민주의와 서사문학- 페드로 후안 소토 소설의 특성 연구 *Colonialism and Narrative in Puerto Rico: A Study of Characterization in the Novels of Pedro Juan Soto*』을 펴냈다. 그는 『우스마

일』을 다룬 장에서 성장 소설적 특징을 강조하며, 우스마일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정 내외의 결핍이 정체성 확립에 미친 영향을 밝혔다.

본고 역시 『우스마일』을 푸에르토리코의 역사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석하고 인물의 행동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흐름을 따른다. 모욕과 모욕하는 세계라는 개념 속에서 각 인물의 저항 불능성과 한계를 포착하여 그 의미를 밝힌 점, 모욕을 사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공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행위로 접근한 점, 모욕하는 세계의 작동원리를 규명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모욕 개념으로 해석한 내용이 문학작품의 현재성을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모욕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치 사회적 학술 연구대상으로 개념화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김찬호, 김현경 등 소수의 학자가 아비샤이 마갈릿(Avishai Margalit),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 등의 사유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입장은 모욕행위와 감정을 사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와 감정이 아닌, 사회적 행위 혹은 사회적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모욕이 사회 문제인 이유는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되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계수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존엄이 하나의 분명한 선언이나 규범으로 등장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2017, 15-17). 이제 윤리적인 세계시민이라면 타인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모욕은 “일반적으로 이를 당하는 당사자가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다른 이와 동등하지 않은 열등한 사람이라는 진술”이자, “개인의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정도로 욕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누스바움 2015, 374). 그러니 모욕이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가 똑같이 존엄한 것은 아니며 온전한 존엄과 훼손된 존엄은 다시 높은 존엄과 낮은 존엄의 위계(位階)로 전환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인데 모욕은 존엄에 위계를 만들므로 공언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한편, 당위가 곧바로 현실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을

모욕을 하거나, 예기치 않게 모욕당한다.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는 현대 사회라지만 당장 노동 현장만 보더라도 직업 안정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모욕당할 확률이 특히 높다. 보편적 존엄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얼마 전 경비단속 노동자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모욕에 시달려 최후의 저항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여론은 새삼 공분했지만 60세 이상 시급 노동자의 노동일지인 『임계장 이야기』에 따르면 임시 계약직 노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노동 현장에서 모욕은 일상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구조적으로 모욕한다는 개념은 모욕하는 주체가 반드시 인간인 것은 아니란 의미다. 제도 혹은 국가가 모욕을 만들어낸다는 논의는 90년대 중반 주디스 버틀러가 『협오 발언(*Excitable Speech*)』에서, 그리고 아비샤이 마갈릿이 『품위 있는 사회(*The Decent Society*)』에서 본격화했다. 마갈릿이 말한 품위 있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간주할 만한 근거가 있는 조건에 맞서 싸우는 사회다. 따라서 한 사회의 제도가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간주할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가 된다”(마갈릿 2008, 24).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욕이 존재하는 사회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현상이지 그것이 특정한 사회의 고정된 속성인 것은 아니며, 이것은 모욕이 없는 사회를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변수는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간주할 만한 근거가 있는 조건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모욕하는 조건을 새로 만드는 것도, 모욕하는 조건에 균열을 내는 것도 결국엔 구성원이고 사람이다. 본고에서는 모욕당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 상황을 통칭해 “모욕하는 세계”라 부른다. 이 세계는 구성원의 대응에 따라 언제나 그 모습과 형태가 바뀌는 유기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모욕하는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각 인물별로 분석한다.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스마일 가족 3대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에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 자연사가 아닌 죽음을 맞는다. 도식화하면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이다. 하근찬의 『수난 이대』가 한국사의 질곡을 그대로 껴안은 아버지와의 아들, 두 세대에 걸친 비극을 보여준다면 『우

스마일』은 키코와 체파, 우스마일로 이어지는 ‘수난 삼대’이다.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모욕하는 세계에 개인이 종속되고 모욕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비에케스의 모욕하는 세계가 더욱 강고해지고 노골화된다. 세대를 거둬하면서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의 패턴은 반복과 동시에 변주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변주의 의미를 해석하여 저항과 관련해 개인의 대응이라는 차원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II.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

1. 비인간화-편집증적 망상-죽음

우스마일의 생물학적 할아버지(체파의 아버지)인 키코는 허리케인으로 아내와 자식을 잃었지만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동네 사람들은 아내 폴라가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집을 나갔다고 믿고 있는 키코에게 폴라가 돌아왔냐고 묻고, 아직도 안 돌아왔으면 신고하라고 희롱한다(Soto 2003, 23).²⁾ 키코는 ‘모로코요(el Morrocoyo)’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래식 화장실을 치워주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물로 그려진다. “[키코 엘 모로코요는] 손을 늘어뜨리고 다리를 모은 채 성자들을 저주하고, 똥통 근처에 어질러 놓은 도구들을 챙겼다. ‘그거 다 청소했어요?’라는 물음에, 키코 엘 모로코요는 고개를 저으며 어깨에 도구를 둘러맸다.”(21). 동네를 돌며 자신에게 일을 주는 데가 있을지 기웃대던 키코를 이발소에서 부른다. 그곳에는 이발사인 베니토와 손님들이 있다. 베니토는 키코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마셨다며 맥주병을 건넨다. 다른 손님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누르고 있다. 병에 입을 댄 키코는 바로 내용물을 뱉고 인상을 찌푸린 채 병을 다시 쳐다본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오줌이니까 그만 치우라고 웃으면서 소리친다. 베니토는 키코에게 다가가 맥주를 판 쪽에서 장난을 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 모욕하려고

2) 본문은 2003년에 쿨투랄(Cultural) 출판사에서 나온 판본을 참고했다. 앞으로 『우스마일』에서 인용한 부분은 페이지만 표시한다.

것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오줌을 먹게 한 베니토의 행동은 타인을 ‘오염’시켜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혀졌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김현경에 따르면, 더럽다는 것은 신성함이 훼손되었다는 것, 혹은 결여되었다는 것이며 사람다움에 대한 부정이다(2018, 80).

모욕당한 키코는 화내기는커녕 상황이 얼른 종료되길 바라며 자신도 따라 웃어버린다. 베니토는 오줌을 마신 키코에게 돈을 몇 푼 쥐어주며 나중에 한잔 사 마실 때는 꼭 냄새도 맡아보고 흔들어보기도 하라며 조언하는데(69), 키코는 베니토가 준 그 돈을 받아서, 베니토의 말대로 맥주를 사 마신다. 키코는 자신이 받은 모욕을 인식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자신이 당한 모욕을 외면한다. 그가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키코가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저항은 언제나 무조건반사처럼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의 중대여부에 따라 이성적 결단이 필요하다. 베니토는 그에게 일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키코는 베니토에게 함부로 들이댈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키코는 빈곤하고 무력하다. 모욕에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고, 자신의 그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욕에 저항할 수 없는 키코는 베니토가 모르고 오줌을 준 것이므로 자신이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더럽혀진 것은 아니라며 정신승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발소라고 하는 소공동체 내 인간집단에서 홀로 소외되었고, 모욕에 적절히 저항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손상된 존엄도 회복되지 않았다.

소설 내에서 키코는 줄곧 열등한 인간으로 묘사된다. 『품위있는 사회』에서 마가릿은 “모욕의 핵심개념은 인간 공동체에서의 거부다. 그러나 그런 거부는 거부당하는 사람이 그저 사물이나 동물에 불과하다는 믿음이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거부는 상대가 마치 사물이나, 동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데 있다. 전형적으로 거부는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이다.”(2008, 127)라고 말했다. 키코는 소설 내에서 모욕당하는 인간의 전형이다. 그를 모욕하는 세계는 인간을 동물화하거나 비인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스로 불화살이 된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이 아닌 사물, ‘불화살’로 남아 짐승처럼 죽었다. 소설은 비인간화된 죽음을 “타오르는 빛, 불타는 화살. 그 광휘는 키코였다. 그는 울부짖으며 아무에게도 덤벼들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젖더미 위에 내려앉았다.”(85-86)와 같이 표현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욕하는 세계 속에서 키코는 모욕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단을 갖지 못했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자연과 타인의 변덕에 달려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욕을 모른 채 했으나 편집증적 망상이 심해지면서 비인간성을 내면화했다. 스스로 죽음을 인식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자살이라 보기도 어렵고 타살이라고 볼 수도 없는 동물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러한 패턴은 자식인 체파에게도 반복된다.

2. 식민화-종속-죽음

체파는 우스마일을 낳기 전 동네에서 빨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소녀였다. 아버지 키코는 체파를 부양하지 못했다. 역으로 체파가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지경이다. 체파는 가정과 사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난관이다. 소설은 “체파는 그들[남자들]을 부러워한다. 그들은 남자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남자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여자는... 여자의 이 빌어먹을 굴레, 체파는 생각했다. [...] 여성은 스스로 먹고살 수 없다. 심지어 혼자 남더라도[...]”(31)라고 여성에게 부과된 굴레를 명확히 거론한다.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기에 너무나 힘든 형편을 체파의 입장에서 묘사하는 것이다. 당시 남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섬을 떠나갔다. 그의 약혼자 역시 비에케스 섬을 떠났다. 그러나 체파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여성이었으므로 비에케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소설은 비에케스 주민들의 생존권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자리와 굶주림이 섬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검은 깃발이 다시 거리를 행진했다. 흰옷이나 담배색갈의 옷을 입고 검은 깃발을 흔들었다. 허리띠에는 초록이나 빨강, 혹은 파랑색 술을 매달았다. 성인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뭔가를 쟁취해야했다. 어떤 팻말에는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또 다른 팻말에는 ‘굶주림이 비에케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쓰여 있다. (128)

미군의 생계 방해는 전 방위적이었다. 미 해군은 “군사훈련에 필요한 해변이나 정박지를 짓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처 전방 수 마일까지 어업을 제한했다.”(121). 비에케스에서 체파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의존이 곧 생존이다. 자신을 비참한 생활에서 구원해줄 기적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인은 비에케스 섬을 부도상태에서 구조하기 위해 오지 않았는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것 아닌가? 그렇다. 체파 또한 섬이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시들고, 모든 것이 부도상태로 추락한 섬. 그를 돌봐줄 남자의 기적만이 체파를 구원할 수 있었다. 대놓고 스스로를 바칠 필요도 없었다. 남자가 지나는 곳에 나타나있지만 하면 됐다. 이제 체파는 남자의 눈 속 깊이 박혔다. 남자는 언제라도 체파를 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46)

이때 체파가 붙잡은 지푸라기가 P.R.E.R.A의 관리자 미스터 아담스였다. 체파는 P.R.E.R.A. 사무실 앞을 의도적으로 지나간다(46). 미스터 아담스가 볼 때 체파의 의도는 명백하다. 성적인 유혹이다.

체파는 해질 무렵 길가에 서있었다. 매우 수다스러웠고 확신에 차있었다. 차에 올라탔다.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 방향이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란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별 소란은 없었다. 피해당한 여성으로서 별다른 의사표명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확실히 기뻐했다. 남자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자동차 뒷자리에 눕혔다. 시간이 흐른 뒤,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체파가 뻔뻔하단 걸 알게 되었다. ‘아이, 마을에 빨래한 옷 가져가야 하는데.’(51)

그럼에도 체파와 미스터 아담스 사이 맺어진 성적인 관계가 상호 동등한 자

격으로 이룬 자율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보기에 게름칙하다. 체파가 살고 있는 비에케스 섬에서는 체파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체파의 삶의 조건은 의존과 종속이다. 미스터 아담스와 동등한 인간의 자격이 아닌 것이다. 체파가 임신한 뒤 미스터 아담스는 비에케스를 떠난다. 그는 체파를 향해 “망할 네그라, 꺼져! 꼴 보고 싶지 않아, 망할 네그라! 난 백인이야, 백인! 백인이라고!”(56) 소리치며 노골적으로 모욕한다. 체파를 모욕한 사람은 미스터 아담스라는 개인이지만 그는 모욕하는 세계를 이루는 한 조각일 뿐이다.

P.R.E.R.A.는 긴급원조를 명분으로 들어왔지만⁵⁾ 푸에르토리코에 설치된 뉴딜정책기구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의 진짜 목적을 민생안정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한다.⁶⁾ 특히 마누엘 로드리게스 Manuel R. Rodriguez는 P.R.E.R.A를 단기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 식민지관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공고화하기 위해 신중히 마련된 전략으로 본다.(2002, p. 157). P.R.E.R.A는 선의로 무장한 식민지 통치 예비기관이자 체파를 모욕하는 세계를 표상하는 권력기관이다.

미스터 아담스의 모욕은 전형적인 인종주의의 발현이었고, 인종주의는 파농이 일갈한 바대로 식민주의⁷⁾의 결과다. 처음부터 미스터 아담스에게 체파는

5) 소설은 P.R.E.R.A.를 비롯한 긴급구호기관들이 섬에 들어오고 나간 것의 역사와, 그것이 실재하는 빈곤과 실업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음을 고발한다. “F.E.R.A.이기도 했던 P.R.E.R.A.는 P.R.R.A로 대체된 뒤 1938년 문을 닫았다가[...] 이제 W.P.A.가 문을 열었다. [...] 비에케스 섬은 분명히 좋아질거라고 했다. 그러나 일들은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실행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약속이자 서류조각으로 남았다. [...]” (92-93).

6) “푸에르토리코 학자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뉴딜을 연구했다. 첫째,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서 뉴딜과 PRERA 프로그램이다. 둘째, PDP당의 포퓰리즘적 프로젝트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뉴딜이다. 마지막으로 뉴딜이 푸에르토리코 노동 계급에 미친 영향이다.” (Rodríguez 2002, 150).

7) ‘모욕’ 개념은 식민지 행정기관과 같이 노골적인 제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모욕하는 제도를 찾아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욕’은 ‘식민주의’보다 아니발 키하노의 ‘식민성’과 더 친연성이 있는 개념이다.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제도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욕하는 제도이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식민제국의 관계, 식민성을 형성한다. 본고는 소설 속에서 모욕당하는 인물들의 ‘존재의

열등한 존재, 가난한 나라의 흑인 여성이었다. 체파는 그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그녀를 다시 한 번 봐야했다. 다른 사람이 그보다 앞서기 전에 먼저 정복해야 했다”(51)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여성들을 정복하고자하는 그의 욕구는 다른 일화에서도 반복된다.

같은 날 아침, 그는 P.R.E.R.A.에서 일할 속기사 신청에 대해 논의하자며 그녀에게 면접을 요청했다. 인터뷰 중에 그녀를 뚫어져라 관찰했다. 그녀는 말랐지만 젊고 매력적이었다. 무능한 남편과 꾸린 가정을 부양하는데 보탬이 될 만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밤중에 다시 그녀를 방문해서 아까는 잊어버리고 못한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일자리 신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다른 것이었다... 그랬다. 소파는 부드러웠고, 집은 작았다. 그는 그녀를 고용할 것이었다. 왜냐면 소리 내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했다. 이 여성은 그가 느끼는 압도적인 권태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만한 충분한 은사를 소유했다. (41-42)

체파로 대표되는 비에케스 여성들을 대상화⁸⁾하고 모욕하는 세계는 미스터 아담스로 치환된 ‘정복하는 자’가 기능하는 장소이다. 체파는 이런 세계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 체파가 미스터 아담스에게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고도 죽을 때까지 그로부터 소식이 오길 기다리며 미국우편에 미쳐간 것은 자

식민성’ 그 자체를 기본적 인식으로 가져간다. 동시에 모욕을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여 저항(해야)하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초점을 맞춰 논지를 전개하였다. 모욕당한 인간은 모욕에 저항해야 한다. 어쩌면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식민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식민성과 모욕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검질기게 말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김은중의 말대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근대성/식민성 연구그룹의 학자들이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것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2018, 16). 틀을 바꾼다는 것은 발화의 패러다임을 ‘당하는 자’의 입장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모욕’개념이 유용한 이유는 당하는 입장에 발화의 주체를 세운다는 점에 있다.

8)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1995년 발표한 논문 「대상화 Objectification」에서 사람(human being)을 사물(an object)로 대하는 것을 대상화로 정의했다. 동시에 인간을 어떤 ‘것’으로 대하는 7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상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1995, 257) 미스터 아담스에게 체파는 체파 그 자체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로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

신의 미래와 생사를 이미 미스터 아담스에게 걸었고 그 외 다른 생존의 방법은 떠올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품었으니 미스터 아담스가 제공할 원조는 더욱 간절하다. 체파는 죽어가면서 “그에게 우스마일이라 이름을 붙여요”(79)라는 유언을 남긴다. 우스마일은 그녀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으나, 외부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종속이고 필연적으로 열등한 존재성을 강화한다.

키코와 체파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모욕하는 세계는 우스마일에 이르러 보다 노골적인 본질을 드러낸다. 비에케스는 미국이 푸에르토리코를 군사화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한 지역이었다. 빅토르 심슨은 “1933년에 설립된 푸에르토리코 긴급 구호국(P.R.E.R.A.)은 가난한 가족들에게 음식과 의복 보조품을 제공했다. 푸에르토리코 재건 행정국(P.R.R.A.)은 1935년에 섬 주민들을 위한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해군 기지 건설과 군용 기지로 섬을 사용하기 시작하던 때.”(2004, 41)라며, 원조기구들이 설치되던 시기에 군사훈련용으로 섬이 사용되기 시작되었음을 지적했다. 기지촌으로 표상된 모욕하는 세계는 우스마일 세대에 이르러 노골적으로 기능한다.

3. 군사화-개인적 처단-잠정적 죽음

미군기지 건설로 비에케스 토지수용이 본격화된 것은 1941년이다. 미 의회는 1941년 3월 17일, 3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비에케스 군사기지 건설에 배정 승인하였고, 1941년 8월 25일에는 비에케스 토지수용을 확정 승인했다. 그 결과 1941년, 미군은 비에케스 토지의 3분의 2를 수용했다. 이런 식의 토지 수용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니엘 임머바르(Daniel Immerwahr)가 2019년에 내놓은 책 『미국, 제국의 연대기 *How to Hide an Empire*』에서 미국을 ‘점묘주의제국(pointillist empire)’이라 규정하게 만든 역사적 실체이기도 하다. 1961년 미국은 아예 비에케스 전체에서 주민을 소개⁹⁾할 계획까지 세웠다.

9) 이 계획은 당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였던 루이스 무뇨스 마린이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간곡한 편지로 철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토지수용의 명분으로 미국은 인권, 인간의 존엄, 자유, 세계 민주주의 수호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다.

정부가 답변을 보냈다. 다시 활기를 돋우는 톤이었다. “그 계획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행될 것입니다. 비에케스에서는 자유를 지키는 군인들이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섬은 인간의 존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부, 인류의 불멸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185)

그러나 정작 비에케스 주민들의 존엄과 자유 인권은 무너져 내렸다. 소설은 훈련장이 건설된 뒤 미군이 비에케스에서 벌인 폭력적 만행을 열거한다.

이번 달 최악의 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새로 시작한 군사훈련이다. 호전적이고 무례하며 소랍스럽고 만취한 자들이 마구 들이닥쳤다. 고요한 마을에 불덩이를 놓았다. 해병들은 배회하며 그전과 똑같은 파렴치한 짓들을 반복했다. 거리에서 남의 뒤를 캐고 다니고, 오션뷰클럽 테라스에서 막춤을 추고, 민간인이랑 난투극을 벌이고, 때로는 경찰과도 싸운다. ‘엘 카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푸에르토리코에 새로 도착한 매춘녀들을 찾아다닌다. 분쟁과 싸움은 그들 취향에 딱 어울리고, 오히려 그게 평온해 보인다. 그들이 이 섬에서 더 원하는 게 뭘까? 지금까지 한 모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 약탈과 강간도 할 만큼 한 게 아닌가? (248-249)

문제는 이런 폭력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스마일은 미군이 만든 폭력적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 환경에서 자라났다. 체파가 죽으면서 나나 루이사가 우스마일을 데려다 키웠다. 우스마일은 나나 루이사의 정성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만, 미군은 계속해서 분노를 유발한다. 어느덧 우스마일은 자라고 나나 루이사는 노환으로 병이 들었다. 그러나 소란을 일으키며 여자들과 술 취해 돌아다니는 외국인들(250)탓에 제대로 실 수 없다. 우스마일은 이런 “미친 광기” 상황을 끝내기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실에 좌절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재난에 비견된다. 소설은 우스마일의 절망감을 대변하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미친 광기를 끝내기 위해 뭐라

도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면 무언가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 허리케인이나 눈사태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249)라고 설명한다. 키코는 ‘바람’(huracán)을 죽이려고 스스로 불화살이 되었는데, 이 ‘바람’은 우스마일에 이르러 미군기지로 구체적 형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스마일은 스스로 저 미군들을 응징하려는 마음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공권력이 미군 앞에 무력하단 걸 알면서도 일단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결국 경찰 막사에서 우스마일은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다. 왜냐면 막사에서 해군병 세 명이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건 이름이 아니었다. 존도(John Doe). 첫 번째 사람은 몇 대 맞았기 때문에 이미 술에서 깨있었다. 턱 밑에서 피를 닦아내며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모두 자신의 이름을 존 도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매춘 여성 중에서 가장 취한 자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비에케스 섬 전체가 그 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250-251)

경찰서에 잡혀온 소동의 주인공들은 비에케스 공권력을 조롱하듯 자신의 이름을 ‘존 도’라고 말한다. 군인들은 짓값을 치르지 않는다. 미군이 저지르는 범죄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처리된다. 우스마일은 또 한 번 절망하며,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우스마일은 생각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한 번의 시도, 또 한 번의 시도, 또 시도하고 더 해서 이천 번을 시도해도 아무 의미 없다. 그들이 억압을 하든 약탈을 하든 강간을 하든 언어맞지 않기 위해 얼굴을 손으로 감싸야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이다”(251-252)라는 무력감을 느낀다. 비극적 사건은 계속 이어졌다. 우스마일이 의지하며 같이 살던 애인 시사(Cisa)는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한다. 경찰서에 간 우스마일과 시사는 또 다시 미군 앞에서 무능한 공권력을 확인했고, 자신들이 당한 모욕을 전시당하는 수치까지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은 막사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걱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경찰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해서가 아니다(여기서는 이 사실이 아무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야 했고, 그들이 이 사건을 모두 알게 되었다. (278)

우스마일은 자신이 비에케스에서 겪은 모든 불행이 자신의 이름이자 원죄인 우스마일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산후안에 가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름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한다(280-281). 이 편집증적 상황판단과 문제해결방식은 할아버지인 키코에서부터 우스마일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증상이다. 모욕하는 세계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그 대응이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의 편집증적 믿음 체계 안에서 산후안은 환상 도시였다. 우스마일은 산후안에서의 삶, 새로운 삶에 대해 큰 기대를 안고 있었다. 마침내 우스마일은 산후안에 도착한다. 오후였기 때문에 관공서 문은 닫혀 있다. 내일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벅차오른다(297). 비에케스에서 벌어진 일들은 산후안과 같은 도시에서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역시 비에케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산후안도 매춘을 위해 거리를 쏘다니는 군인들의 도시였던 것이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우스마일은 “여성과 어떻게든 빨리 자보려고만 하는 해군들을 보면서 더 이상 기쁠 수 없었다. ‘엘 카논’의 매춘녀한테 하듯이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 곧바로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긴 비에케스가 아니라, 산후안이다. 품위있는 이름과 기쁨을 찾아서 온 곳이란 말이다.”(303).

그는 결국 이름을 바꾸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란 믿음을 폐기한다. 그날 밤 술집에서 푸에르토리코 여성에게 집적대는 군인을 보자마자 싸움을 걸고 죽인다. 죽은 군인의 시체를 보며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 어머니, 미군에 복무하는 포주가 된 어릴적 친구 김보를 떠올린다. 우스마일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차분하게 수갑으로 손을 내밀었다. 입술에 문 담배 연기 사이로 다시 한번 김보이자 체파이자 미스터 아담스인 시체를 쳐다봤다.”(310). 그는 자신의 살인행위를 스스로 상징적 차원에서 해석한다. 자신이 연루된 미국과의 연결

고리를 모두 끊어버렸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우스마일은 이전 세대인 체파와 키코와 달리 편집증적 세계관에서 스스로 벗어나 실제 세계의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도약을 이룬다.

우스마일은 살인죄로 조사를 받을 때 이름을 묻는 경찰관 앞에서 “내 이름 네그로야, 알아들어?”(313)라며 자기를 네그로라고 호명한다. 그러자 조사관은 ‘존 도(John Doe)’라고 기입한다. 이에 우스마일은 격분해서 “존 도 아니야! 존 도 아니라고!”(UM, p. 314) 소리친다.¹⁰⁾ 경찰관은 우스마일이 말한 네그로를 아무개라는 기의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 기표를 ‘존 도’로 적었다. 경찰관이 보기에는 네그로와 마찬가지로 의미다. 그러나 우스마일에게 네그로는 특별한 의미다. 네그로라는 자기호명은 아무개라는 익명으로 존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강제된 운명인 ‘우스마일’을 거부하고, 스스로 운명과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또 네그로라는 이름을 택한 것은 모욕하는 쪽이 아니라 저항하는 쪽을 택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스마일이 본인을 네그로라고 호명하는 장면은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저항적 선언이다.

네그로라는 자기호명의 저항적 행위는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결말이기도 하다. 작가인 페드로 후안 소토는 이 장면을 위해 우스마일이 비에케스를 떠나야했다고 자문자답식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¹¹⁾ 우스마일이 자기 자신을 네그로라 호명할 수 있도록 누군가 우스마일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필요했기에 우스마일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산후안이 소설을 마무리짓는 배경으로 설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소설의 흐름 속에서 배

10) 『존 도를 만나다』(Meet John Doe (Juan Nadie))는 프랑크 카프라의 1941년 영화다. “존 도는 전형적인 미국의 구원자로서 폭력적이고 개별적인 자살적 구속 행위를 통해 우울하고 겁먹은, 외부로부터 조종당하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저항을 표명하기를 갈망한다.” Cf. (Rubio Alcover 2004, 116).

11) “나머지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만큼은 비에케스의 지리적 경계 밖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똑같이, 타당성을 침해하지 않고서, 비에케스에서 재현할 수 있겠는가? 비에케스의 경찰은 우스마일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의 이름에 대한 의심도 없다. 우스마일이 자신의 이름을 부정할 때 경찰들이 그에게 떠맡긴 이름 ‘존 도’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전개할 수도 없다. 나 역시 비에케스 자체에서 소설을 완결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Soto, 1973, 64-65)

경의 이동은 모욕하는 세계의 외부 역시 모욕하는 세계의 일부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탈주는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세계의 구성원리를 타격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우스마일의 저항 의식과 저항 행위, 즉 모욕하는 세계로 상징되는 미군을 죽인 것과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네그로라 호명한 것은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도약이다.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의 패턴으로 보자면 키코와 체파의 경우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저항 아님)-죽음’이지만, 우스마일에 이르러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저항)-죽음’으로 변주된다. 그러나 우스마일이 보여준 한계 또한 명백하다. 모욕하는 세계에 물리적으로 포박되었고 철저히 혼자 남았다. 이것은 잠정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이를 잠정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다시 살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잡힌 우스마일의 심경을 소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아, 조금의 평화. 경찰들이 그에게 저 이름을 부르지만 알아서도 좀 더 평화로웠을텐데. 나나 루이사가 말했던 인간(el Hombre)으로서의 평화. [...] 가슴에 바람이 지나는 고독한, 인간(el Hombre). 그는 크리스마스를, 저 멀리 있는 위안을 기다린다. 얼굴 위에 손을 얹고 (316)

나나 루이사는 우스마일을 키우며 “몸과 마음을 바쳐 그에게만 헌신하기로 했다. 저 자그마한 생명체가 인류의 가장 위엄있고 깊이 뿌리내린 개념을 따라 진정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를 그냥 남자(hombre)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Hombre)으로 만들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고 강인하고 저항할 줄 알고 훌륭하고 신중한 인간 말이다”(87)라고 결심했다. 나나 루이사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Hombre)는 저항하는 인간이었다. 이 생각은 추후 비에케스에서 벌어진 짧지만 강렬했던 저항 운동 이후로 더욱 확고해졌다. 나나 루이사는 “기나긴 고통과 분노의 흔적이 남아 이제 진정으로 가야할 길, 반란을 가리킨다”(185)라며, 저항하는 인간의 삶을 강조한다. 우스마일은 저항했다. 그러나 잠정적 죽음 앞에서 있다. 우스마일이 품은 일말의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잠정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하고,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의 패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대응(저항)의 주체다. 키코와 체파, 우스마일은 모두 혼자였다. 모욕하는 세계에 맞선 개인적 대응이 반복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비분강개를 터뜨리고 개인적으로 적을 처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저항은 조직적인 싸움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것은 우스마일이 후대에 남긴 과제다. 나나 루이사가 말한 대문자 인간은 개별 인간이 아닌 함께 저항하는 인간의 총체일 것이다.

III. 결론

『우스마일』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인 비에케스의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풍경을 인물의 성장을 중심으로 그려낸다. 비인간화, 식민화, 군사화로 작동하는 모욕하는 세계 속에서 모욕당한 자들은 인간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외부에 종속되고 개인적 복수와 투옥을 겪는 등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죽음을 맞는다. 우스마일은 한계가 분명할지언정 명백한 형태로 저항을 표출했지만 삼대가 모두 모욕하는 세계에 맞서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패턴을 지닌다. 소설이 출간된 지 60년이 흘렀고, 사회는 변했다. 비에케스에서 미군 훈련장이 폐쇄되었고, 푸에르토리코 전체에서 많은 미군기지가 폐쇄되었다. 소설에는 주요하게 등장하지 않는 저항하는 사람들의 질긴 투쟁 덕분이었다. 그러나 모욕하는 세계는 여전히 작동한다. 2000년 1월 30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내린 지시에 따라 ‘비에케스 해군 훈련 지역 Vieques Naval Training Range’에서 해군은 2003년 4월 30일 훈련을 중단했다. 그러나 훈련 중단 조치와 함께 주민 거주 지역으로 시에 반환된 토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토지는 소유권이 미 국무부로 이전되었고,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국립 야생 동물 보호 구역 National Wildlife Refuge’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비에케스 주민들이 오고갈 수 없다. 비에케스의 암 및 기타 질병 발병률이 여타 푸에르토리코 지역보다 훨

씬 높지만, 미국은 미군이 훈련도중 쏟아 부은 우라늄과 에이전트오렌지를 비롯한 독성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여전히 군대가 점유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환경 단체가 질병 연관성의 증거를 제출하기도 쉽지 않다. 모욕하는 세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저항이 요구된다.

모욕하는 세계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비에케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주해군기지와 성주사드기지에서 목도하듯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설 속 모욕하는 세계와 인물의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소설은 모욕하는 세계의 원리를 자세히 묘사하고 가족 3대에 걸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인물들의 유형을 보여준다. 소설은 모욕하는 세계에서 저항하는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죽음이란 결론을 통해 묘사한다.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의 패턴은 '모욕하는 세계-조직적 저항-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변화해야 한다. 소설은 1950년대에 쓰여 졌고, 후대의 과제는 독자의 몫이다. 모욕하는 세계의 원리를 인식할 것, 무엇이 문제인지 왜곡 없이 직시할 것, '함께' 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 품위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중(2018), 「다른 세계는 이미 가능하다: 전 지구적 남부와 트랜스모더니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9, No. 2, pp. 1-27.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너스바움, 마사(2015),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서울: 민음사.
- 마갈릿, 아비샤이(2008), 『품위있는 사회』, 신성림 옮김, 파주: 동녘.
- 신형철(2009), 『몰락의 에티카』, 파주: 문학동네.
- 이계수(2017), 「인간존엄과 민주법학-노동, 젠더, 장애」, 민주법학, Vol. 63, No. 63, pp. 11-35.
- Cila Rodríguez, Carmen(2019), “A 60 años de su publicación Vieques y Usmaíl: Cuando la realidad se funde con la ficción,” *Claridad. El periódico de la*

- nación puertorriqueña*, 3 de julio.
- Nussbaum, Martha C.(1995), “Objectifica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24, No. 4, pp. 249-291.
- Rodríguez, Manuel R.(2002), “Representing development: new perspectives about the new deal in Puerto Rico 1933-36,” *Centro Journal*, Vol. XIV, No. 2, pp.149-179.
- Rubio Alcover, Agustín(2004), *Guía para ver y analizar: Seven. David Fincher (1995)*, Valencia-Barcelona: Nau Llibres-Octaedro.
- Simpson, Victor C.(2004), *Colonialism and Narrative in Puerto Rico: A Study of Characterization in the Novels of Pedro Juan Soto*, New York: Peter Lang.
- Soto, Pedro Juan(1973), *A solas con Pedro Juan Soto*, Río Piedras: Ediciones Puerto.
- _____(2003), *Usmaíl*, San Juan: Ed. Cultural [1aed.1959].
- Umpierre, Luz María(1981), “Corrientes ideológicas en el ‘Usmaíl’ de Pedro Juan Soto,” *Bilingual Review / La Revista Bilingüe*, Vol. 8, No. 1, pp. 62-74.
- United States Congress, “An Act Making deficiency and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the Army and Navy for the national defense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41, and for other purposes [Public Law 13],” *77th Congress*, 1st Sess., chap. 16, March 17, 1941.
- _____, “An Act Making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the national defense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42, and for other purposes [Public Law 247],” *77th Congress*, 1st Sess., chap. 409, August 25, 1941.

최사라

서울대학교
sara1@snu.ac.kr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7일

Usmaíl: Repetition and Variation of ‘Insulting World-Individual Response-Death’

Sara C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e, Sara(2020), “*Usmaíl: Repetition and Variation of ‘Insulting World-Individual Response-Deat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2), 133-154.

Abstract *Usmaíl* depicts the history of Vieques from the 1930s to the 50s through lives of Usmaíl's family. The miserable life of the family, led by Quico (1st generation)-Chefa (2nd generation)-Usmaíl (3rd generation), interacts with the ‘Insulting World’. This study intends to expand the reality of the novel-that was obtained by detailed and specific regional-based realism to our contemporary age by revealing insulting world's principle and the types of individual responses of people. The pattern of response to the insulting world is analyzed for each person. First, the principle Quico went through is dehumanization. His response to the world and its outcome were paranoid delusions and death. Second, the principle that Chefa experienced was colonization, and her response and its result were subordination and death. Finally, the principle that Usmaíl went through was militarization. Unlike the previous generations, Usmaíl does resistance and is caught by the police. In this study, this is interpreted as a temporary death. Usmaíl's family seek a survival way in insulting world that has strengthened through generations. But the result is all death. The novel describes in detail how difficult it is to live as a resisting human in insulting world. In addition, it draws the conclusion that living as an unresisting human in insulting world results in death. At the same time, through Usmaíl, it simultaneously show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individual resistance. The situation of Usmaíl in the ending of the novel can be read as the end of an era dominated by the pattern of ‘insulting world-individual response-death’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Recognize the principles of the insulting world, face the problem without distortion, and resist ‘together’. That is the moment when we start our life as the decent human being.

Key words *Usmaíl*, Vieques, Puerto Rico, Insult, Resistance